

한 번 졌을 뿐...한국이 잘하는 축구로 멕시코 잡아라



이승우

24일 멕시코전 '더위와의 싸움' 로스토프나도누 30도 안팎 날씨 컨디션 관리가 승부의 변수로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더위와의 싸움'이 멕시코전 승부에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 F조 2차전을 벌일 로스토프나도누는 조별리그 경기를 벌이는 3개 도시 중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로스토프나도누는 로스토프주의 주도로, 동강의 하류, 아조프 해의 연안에 있는 러시아 남부의 항구 도시다. 6~7월 평균 기온이 섭씨 영상 22.2도로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는 11개 도시 중 가장 높다.

특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지금 날씨는 더위가 한창이다.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간다. 습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강한 햇빛과 더위가 멕시코전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팀은 평균 기온이 17.3도 안팎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고, 스웨덴과 1차전 장소였던 니즈니노브고로드도 평균 17도 안팎이었다.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23일 오후 6시(한국시간 24일 오전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멕시코와 결전을 벌인다.

다행히 경기 시간이 오후 3시가 아닌 6시여서 열기가 조금 덜하지만 그때까지도 3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선수들은 18일 스웨덴과 1차전 0-1 패배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데다 나올 만에 경기를 다시 치르려 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가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 선수들도 집단 감기 증세를 보인 후 회복 중이라 후유증이 예상되지만 독일과 경기를 한국보다 9시간 먼저 했기 때문에 체력 회복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더위와 맞닥뜨리는 태극전사들과 감기를 앓았지만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많았던 아스텍 전사 후예들 간 맞대결에서 컨디션 관리가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스웨덴과 1차전 한국 선수들 103km 뛰어 ... 활동량 32개국 중 20위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어다닌 거리가 32개국 가운데 20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FIFA가 매 경기 통계를 내는 특별 움직임 거리를 따져보면 한국은 18일 열린 스웨덴과 F조 1차전에서 이동 거리 103km를 기록했다. 이는 32개국의 1차전 움직임 활동량 가운데 공동 2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장 많이 뛰어다닌 팀은 개최국 러시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개막전에서 118km를 움직이며 5-0 대승을 끝

냈다. 우루과이와 이집트의 A조 1차전은 우루과이가 111km, 이집트 112km를 뛰어 양 팀의 활동량이 가장 많았던 경기로 기록됐다.

가장 적은 이동 거리를 기록한 팀은 H조 콜롬비아로 전반 초반에 한 명이 퇴장당한 탓에 93km를 기록, 32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00km

한국의 2차전 상대 멕시코는 독일과 1차전에서 106km를 뛰어 32개국 1차전 결과 가운데 13위, 독일은 110km를 달려 공동 5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F조 한국 - 멕시코 전력분석

월드컵 성적

10회 본선 진출
2회 16강 진출
1회 4강 진출
최고 성적: 4위(2002년)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스웨덴전 1:0 패

2018월드컵 예선 성적 아시아 2위 (12승3무3패 38득점/10실점)

조현우(26세)	189cm / 75kg / 대구 FC / 5-2
김득 신태용(48, 한국)	
손흥민(26)	183cm / 78kg / 토트넘 홉스퍼 (잉글랜드) / 65/21
황희찬(22)	177cm / 70kg / 레드불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 13/2
주장	
기성용(29)	189cm / 75kg / 스완지 시티 (웨일즈) / 100/10
이승우(20)	170cm / 60kg / 헬라스 베로나 FC(이탈리아) / 2/0
이재성(25)	180cm / 70kg / 전북현대모터스 / 33/6
정우영(28)	186cm / 78kg / 빗셀고베 (일본) / 28/1
김민우(28세)	172cm / 69kg / 상주상무FC(중국) / 18/1
김영권(28)	184cm / 74kg / 광저우 에버그린(중국) / 51/2
장현수(26)	187cm / 77kg / FC 도쿄 (일본) / 49/3
이용(31)	180cm / 74kg / 전북현대모터스 / 26/0

월드컵 성적

본선 진출 16회
16강 진출 6회
8강 진출 2회
최고 성적: 8강(1970 1986)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독일전 1:0 승

북중미 1위 (11승4무1패 29득점/8실점)

감독: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오 (57, 콜롬비아)	기예르모 오초아 (32세) 183cm / 78kg (소말리아 리에주) / 80/0
독일전 특징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30세) 175cm / 73kg (멕시코) / 92/47	이르빙 로사노 (22세) 175cm (에콰도르) / 16/2
에ктор 에레라 (28세) 180cm (보리보) / 54/4	인드레스 파르다도 (31세) 169cm / 67kg (레알 베티스) / 136/24
미겔 라온 (29세) 179cm / 66kg (세비아) / 51/5	카를로스 벨라 (29세) 178cm / 73kg (LA FC) / 55/17
카를로스 실세도 (24세) 188cm / 77kg (포르투갈) / 11/0	우고 아이라 (31세) 183cm (티그레스) / 15/2
에ктор 모레노 (30세) 183cm / 76kg (레알 소시에다드) / 79/2	헤수스 가야르도 (25세) 176cm / 73kg (푸마) / 16/2

6월 24일 (일) 오전 0시 로스토프 아레나 수용인원: 45,000명

역대 전적: 4승 2무 2패 19득점 26실점

4-4-2

예상 베스트 11

FIFA랭킹

6월 현재: 독일 1위, 멕시코 15위, 스웨덴 24위, 한국 57위

스페인 간신히 첫승...이란의 '10백 늑 축구'에 혼쭐

코스타 결승골 1-0 승리

스페인 축구대표팀이 이란이 깔아놓은 '늑 축구'에 목까지 잠겼다가 간신히 빠져 나왔다.

스페인은 21일 이란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후반 9분 터진 디에고 코스타의 골을 앞세워 1-0으로 신승했다.

당초 두 팀의 경기는 쉽게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였다.

전력상 열세로 평가받은 카를로스 케이로스 이란 대표팀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스페인을 이길 마술 같은 공식이 있다면, 100만 유로라도 주고 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이 꺼낸 카드는 극단적인 선 수비와 후 역습이다.

이란은 페널티 박스에 골키퍼를 포함해 선수 11명이 빠져나가 포진해 상대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다. 여기에 '침대 축구'가 더해졌다.

이란 선수들은 작은 충돌에도 쓰러져 그라운드를 굴렀고, 심지어는 잘 뛰다가 혼자 쓰러지기까지 했다.

이란의 이러한 전술은 전반까지 완벽하게 통했다.

스페인의 '타카타카'는 이란의 육탄 방어와 맥을 똑똑 끊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다.



스페인의 디에고 코스타(오른쪽)가 21일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 동료 이스코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의 공격 전개는 중간에서 끊기기 일쑤였고, 간신히 슈팅을 날리면 이란 골키퍼 알리레자 베이란반드가 선방을 펼쳤다.

이처럼 스페인은 성공적으로 압박했던 이란의 질식수비는 후반 9분 허무하게 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이란 수비수 라민 레자예안이 견어낸다는 것이 코

스타의 다리에 맞았고, 공은 그대로 골문에 빨려 들어갔다.

선제골이 터진 뒤 이란은 밀집 수비를 풀었고, 스페인 골문에 파상 공세를 했다.

그러나 골결정력 부족으로 만회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 첫 패배를 당했다. 이란은 아시아 무대에서 쓸쓸하게 썼던 침대 축구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게 속독이었다. /연합뉴스

수아레스 행복한 하루 "경사났네"

A매치 100 경기·우루과이 16강 확정 결승골·아내 셋째 임신

A매치 100번째 경기와 우루과이의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 결승골, 그리고 아내의 셋째 임신 소식까지.

우루과이의 간판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바르셀로나)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하루였다.

수아레스는 2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치른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전반 23분 결승골을 터트리며 우루과이에 1-0 승리를 안겼다.

1차전에서 이집트를 1-0으로 꺾은 우루과이는 2연승을 기록하며 3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

이날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출전)에 가입한 그는 '자축포'를 터트린 뒤 환하게 웃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수아레스는 골을 넣은 뒤 공을 유니폼 상의 안에 넣는 세리모니를 펼치며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수아레스는 경기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로 100경기를 뛰게 돼 기쁘다. 또다시 16강 진출을 달성해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셋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 기쁘다"고 썼다.

그는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수아레스는 축구계의 대표적인 악동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그는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돌출 행동을 해 '핵야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루이스 수아레스가 21일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고 셋째 아이 임신 축하 세리모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랬던 수아레스는 점차 기행을 벗어던지고 그라운드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 소피아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다.

수아레스는 축구계의 대표적인 악동이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그는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돌출 행동을 해 '핵야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랬던 수아레스는 점차 기행을 벗어던지고 그라운드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 소피아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다. /연합뉴스

모로코 월드컵 20년 꿈

단 2경기 만에 끝났다

포르투갈에 져 조별리그 탈락

20년을 벌러온 북아프리카 강호 모로코의 도전이 단 2경기 만에 끝났다.

모로코는 20일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B조 조별리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0-1로 졌다.

이란(0-1)에 이어 포르투갈에 패한 모로코는 2패로 본선에 오른 32개 나라 중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모로코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래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역대 5번 월드컵에 출전해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16강 진출의 성적을 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32년 만에 최고 성적 재현에 나섰지만, 불운에 가로막혀 쉽게 짐을 썼다.

16일 이란과의 1차전에선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아지즈 부하트즈의 자책골로 아깝게 패했다.

배수진을 치고 나선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선 전후반 90분 내내 속도로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전반 4분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내준 헤딩 결승골을 만회하지 못했다.

두 경기에서 모로코는 슈팅 29개, 유효 슈팅 7개를 날렸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모로코는 월드컵 20년 꿈 단 2경기 만에 끝났다. 포르투갈에 져 조별리그 탈락. /연합뉴스